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화재

냉장고 1만5000대 소실로 재산피해 38억원 ... 창고 2개동 전소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에서 불이나 냉장고 1만5000여대가 소실되고 재산피해가 40억 가까이 발생했다. 12월15일 오전 2시경 인천시 남구 용현동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은 냉장고 완제품 등을 보관하던 철근 콘크리트조 단층 창고 2개동 내부 6468㎡와 냉장고 1만5000대 등을 태워 38억여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정)를 냈다.

그러나 화재 당시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거나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인천시 소방안전본부는 시내 7개 소방서에 긴급출동을 지시하는 광역3호를 발령하고 소방관 740명과 각종 장비 50대를 투입해 오전 5시38분경 진화를 마쳤다.

진화과정에서 박씨 등 소방관 4명이 손등과 어깨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냉장고 완제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15>